



## 미국을 향한 부르심("The Call")에 함께 합시다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8월 15일

내일 (8월 16일 토요일)은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원들 다수가 워싱턴 DC 몰에서 열리는 역사적 기도/금식 성회 '더 콜'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모임이 미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쟁점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 겸손

우리는 메시아의 몸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순복하여),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나라의 치유는 불신자들의 행적보다 신자들의 기도로 좌우됩니다. 우리가 그 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손가락이 이 말씀을 하늘에 가득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아를 믿음을 통해, 같은 약속이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게나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뤄진다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을 신실히 이루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 지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쌍방향으로 증거함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대선

워싱턴 DC 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 그 때에, 두 대선 후보 오바마와 맥케인은 함께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사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그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엡 1:16-23, 단 4:17, 21:1).

## 의로운 사사들의 회복

성경에는 정부 지도자들, 특별히 판사들의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1:26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파벌 정치가 아니라, 정부 내의 사회 정의와 정직입니다 (물론 항상 정치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 구절은 시두르 Siddur (유대 전통 기도서)에 인용되어 있어,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라에서든 의로운 정부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번 가을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세계 정부들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의로운 정부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거룩한 재판관들이 택정되도록 기도합시다.

## 지하드와 테러에 대한 승리

많은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지하드에 태생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무력 세계 정복, 이스라엘 파괴 및 기독교의 굴복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세계 전쟁으로 치달아, 인류 문명을 위협할 것이며 재림하시는 예수아의 직접 간섭을 통해서만 해결될 것입니다.

스카랴 12:9, 14:3-4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이 지하드라는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봐야 합니다. 뉴스 미디어와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면이  
중심적이긴 합니다. 이라크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며, 테러 단체들이 격파되고 온건한  
연정이 세워지고, 미군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빈 라덴 Bin Laden 과  
엘 자위리 El Zawiri 가 잡히거나 사살되기를 (미 대선 약 60일 전쯤) 기도합니다.  
군사적 승리로 복음이 중동 전체에 퍼져가는 데에 더 큰 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 미국의 회개

옛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나라를 복 주시면 자라 “살이 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양상이 있었습니다 (신 32:15).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상은  
많은 경우 오늘날의 미국에도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25-26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찼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반역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윤리적 “비만”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윤리적 표준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인본주의자든, 혹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폭력 범죄, 낙태, 음란물, 기업의 부패, 위선적 사역 등은 언제나  
그랬듯 오늘날에도 그런 것입니다. 이 죄악들이 회개 되고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 미국의 사명

주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면, 그 나라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윤리적 기준과 복음 전파 두 가지 모두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미국의 갈등은 부정한 오락물의 조장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복음의 전파국이  
될 것인가 하는 거입니다. 미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가치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